

시편 주석과 목회자 칼빈¹⁾

최형걸
(교회사)

1. 서론
2. 칼빈의 시편 이해
3. 시편 주석과 목회자 칼빈
4. 비판적 정리
5. 결어

1. 서론

신학자 또는 주석가로 유명한 칼빈은 목회자로서는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며 교인들에게는 경건을 강조하는 칼빈의 목회는 성경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칼빈 본인은 사실 신학자나 주석가로 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목회자였다. 따라서 그의 목회에는 성경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시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목회 사역뿐 아니라 전체적 삶과 목회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1) 이 글은 2002. 6.17-18에 있었던 “Pro Ecclesia 신학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다듬은 것임.

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라는 일반적 평가가 맞는다면²⁾, 칼빈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칼빈 주석을 편집한 편집지는 시편에 대해서 칼빈의 시편주석이 “경건의 심오한 작용을 느꼈던 한 영혼의 열매”임을 보여준다고 평한다³⁾. 그리고 진정한 경건과 수많은 기독교적 체험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한다. 칼빈이 쓴 시편 주석 서문⁴⁾을 통해서 그의 시편 이해, 목회와 연결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2. 칼빈의 시편 이해

칼빈에게 있어서 시편은 읽는 사람이 “경이로운 이득”을 받게 될 책이다.⁵⁾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여기(=시편)에서… 혼란된 감정으로 쉽게 동요되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있”⁶⁾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자신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의 악덕을 드러나게 하며, 위선에서 벗어나 피난처를 발견하고 마음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⁷⁾ 이것을 보면 칼빈의 시편에 대한 기본 이해는 우리 인간들은 악덕 때문에 감정이 혼란되고 동요되지만, 시편을 읽으면 이러한 혼란과 동요의 원인인 위선을 깨닫게 되고 또 동시

2) Hans J. Boecker; Hans-J. Hermission; Johann M. Schmidt; Ludwig Schmidt,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146.

3) 칼빈 주석 영문판편집자(James Anderson) 서문, 『칼빈성경주석』(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성서교재간행사, 1990), 150 (이하 편집자 서문).

4) Text는 칼빈 주석 영문판을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가 한글로 번역한 것과 영문판을 사용했음.

5) 칼빈 주석 저자 서문, 『칼빈 시편주석』, 157 (이하 저자서문).

6) 저자서문, 157.

7) 저자서문, 157. 이것은 칼빈이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부르는 근거이기도 하다.

에 성령의 도움으로 피난처를 찾고 빛 가운데로 인도 받게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본 이해 하에 칼빈은 시편을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하나는 일반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으로 시편이 혼란된 감정이나 인간의 악덕을 넘어 피난처를 발견해 가는 방법인 기도와 그 결과인 찬양에 대해 설명하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이끈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개인 경험을 가지고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개인의 경험을 시편 이해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시편의 일반적 이해인 기도와 찬양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또는 목회 현장과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적 이해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교회라는 시편의 궁극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즉 그는 시편을 교회를 위한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성령의 뜻이고, 결국 칼빈이 시편을 주석하는 목적 또는 교회의 교회를 위한 시편의 사용은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2.1. 참된 기도와 찬양을 가르친다.

시편에 대한 칼빈의 일반적 이해는 시편이 하나님 찬양에 대한 방법을 가르침과 신앙의 훈련을 도와주는 데에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고 시편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이 둘은 거의 동전의 앞 뒷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편에 대한 칼빈의 기본 이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피난처 발견” 하는 것은 인간이 혼란과 동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⁸⁾ 칼빈의 시편 이해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8) 저자서문, 158.

이 개념 즉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동시에 아마도 기도의 결과로 설명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 같은 보살핌과 연려에 대한 증거와 체험을 찬양”⁹⁾하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빈에게 인간이 안전을 도모(=피난처 발견)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한 더 좋고 잘못이 없는 규칙은 시편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¹⁰⁾ 그런데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칼빈은 훈련과 기도를 동일시한다. 이 둘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강을 주는 위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도록 만드는 것”¹¹⁾이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편은 기도에 힘쓰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칼빈에게 시편은 인간이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다.

그런데 올바른(칼빈의 표현을 따르면 위로를 체험하게 하는) 기도는 순수하고 진지한 기도이다. 순수하고 진지한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로 인도 받는다.¹²⁾ 하지만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바로 시편을 읽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병(한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방법까지 배우게 된다. 시편에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시편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제시되고, 육체적 어려움에서도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9) 저자서문, 159.

10) 저자서문, 158.

11) 저자서문, 158.

12) 저자서문, 158.

보여주어 우리가 의심에 동요될 때면 언제나 그 의심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향해 일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심이나 공포, 걱정까지도 극복하고 마음에 만족과 평강을 주는 위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도록 한다는 것이다.¹³⁾ 결국 시편은 기도하는 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특권이 된다. 칼빈은 시편이 알려주는 특권이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 갈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 부끄러워하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허락과 자유라는 특권이라고 말한다.¹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관한 설명이다.¹⁵⁾ 기도는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칼빈이 시편은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기도하도록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알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쓰고 있는 것은 시편이 기도하게 하는 책이라는 그의 이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칼빈은 “누군가가 시편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이 (시편에) 어느 정도 숙달되었는가에 비례하여 천국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¹⁷⁾고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천국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하나님께 부탁”해서 “인간의 안전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만큼 시편을 통한 기도와 이로 인한 특권은 칼빈에게서 천국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13) 저자서문, 158.

14) 저자서문, 159.

15)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 참조.

16) 저자서문, 158-9.

17) 저자서문, 158.

다음으로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도와 찬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칼빈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도를 설명하면서 시편이 “기도하려 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거나 “위로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도록 만든다”거나 “좌절할 뻔했으나… 불굴의 노력으로 상을 얻게 된다”는 것 등의 내용¹⁸⁾은 기도와 찬양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 같은 보살핌과 염려에 대한 증거와 체험을 그렇게 훌륭한 어투로 찬양¹⁹⁾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보살핌과 염려에 대한 증거와 체험”은 기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도의 결과가 찬양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그가 시편을 기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동시에 “이 책에서… 참 신자들이 몹시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 있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에 대한 일반적 찬사를 발견하게 된다²⁰⁾”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가 말하는 찬양이 기도를 하도록 이끌림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해가 옳다면 시편의 찬양과 관련해서 칼빈이 자주 언급하는 올바른 찬양은 기도와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그가 시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올바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훌륭한 어투로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에서²¹⁾ 말하는 “올바르다”거나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말은 곧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닫게

18) 저자서문, 158.

19) 저자서문, 159.

20) 저자서문, 159.

21) 저자서문, 159.

되고 치료하는 방식을 배운 기도²²⁾의 결과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찬양일 것이라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고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받은 사람은 동시에 시편에서 올바른 찬양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틀에서 본다면 칼빈에게서 시편은 읽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도록 해서 마음의 갈등과 동요로부터 피난처를 얻어 생명으로 나오도록 가르치는 책인 동시에,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역시 가르치는 책, 그래서 올바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책인 것이다. 이것을 칼빈은 “시편이 우리를 거룩과 경건의 생활로 틀이 잡히도록 해주는 많은 가르침으로 넘치고”²³⁾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칼빈의 시편 이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편이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 목적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십자가를 지우는 일”²⁴⁾이라고 명시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종의 증거로, 복종한다는 말은 우리들 자신의 감정 인도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²⁵⁾ 이렇게 감정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가장 혹독했고 심했던 고통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유래함으로써 달콤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⁶⁾

이러한 내용 전체를 칼빈은 스스로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그는 시편을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며 모든 행복을 그분에게서만 구하도록 가르쳐 주고, 참 신자들이 몹시 궁핍할 때에 하나

22) 저자서문, 158.

23) 저자서문 159.

24) 저자서문, 159.

25) 저자서문, 159.

26) 저자서문, 159.

남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 있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에 대한 일반적 찬사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와 함께 확고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값없는 죄사함이 확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²⁷⁾고 요약한다. 칼빈에게서 시편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책인 셈이다.

2.2. 자신에 대한 발견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관해 다룬 다음에 칼빈은 시편을 자신의 개인적 삶과 연관시켜 시편을 읽고 있다. 그는 우선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투쟁에서 갖게 된 경험을 통해서 시편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게 되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시편 저자들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⁸⁾ 이것은 칼빈의 시편 이해가 학문이나 주석을 통한 결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경험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⁹⁾ 그리고 이 경험은 곧바로 시편 저자들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한다. 즉 그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저자들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설명되고

27) 저자서문, 159.

28) 저자서문, 160.

29) 이 부분은 칼빈의 성경해석이 인문주의적 방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또한 칼빈의 설교가 “인간적 지식의... 실용성에 대한 그의 주된 관심에 비추어 해석되어 한다”는 윌리엄 부스마의 해석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윌리엄 부스마, “존 칼빈의 영성”, in 『기독교 영성(II)』, (질라이트, 버나드 맥긴, 존 마이엔도르프 편; 서울: 은성 1999; 460-483), 464.

있다.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를 칼빈은 “다윗이 그들(=시편 저자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지위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고통당했던 것과 같거나, … 다윗이 했던 하소연을 보다 충분히 이해함에 있어서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³⁰⁾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런데 자신을 철저하게 다윗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대비는 “내가 다윗이 고통당했던 것과 같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받았던 사실”을 넘어 “내 소명의 시작과 내 임무의 지속되는 진로를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다윗에게서 본다”³¹⁾고까지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다윗보다 훨씬 못하다”는 겸손을 떨고 있기는 하지만 칼빈은 다윗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는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법학공부를 시작했다가 신학공부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것과 자신의 회심이 갑작스런 사건이었다는 것³²⁾과 이를 통해서 “참 경건에 대한 어떤 맛과 지식을 얻”³³⁾었다는 것, 또 그후 어떻게 해서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그 등지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해 놓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법학공부 중에 복음 사역자가 된 사실³⁴⁾ “하나님께서서는 내게 너무나 다른 방향전환과 변

30) 저자서문, 160.

31) 저자서문, 160.

32)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313 이하에 “칼빈의 회심”이란 소논문이 실려 있다. 다만 이 논문은 회심의 연대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3) 저자서문, 161. 경건은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적 주제이다.

34) 회심한지 일년도 안됐다는 말은 그가 법학공부를 하는 도중이었음이 분명하다. (파커 책 320쪽 참조) 그러므로 칼빈은 법학 공부하면서 이미 복음 사역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아마도 Meaux 그룹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화를 통해서 인도”하셨다거나 기독교 강요 역시 어쩔 수 없이 출판해야만 했다는 것, 제네바 체류와 기타 그후에 벌어진 모든 것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이 여정은 “갈등과 시련”의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정은 “다윗이 그 자신의 발자취로써… 길을 보여” 준 것이었다고 말한다.³⁵⁾ 다윗이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시달림과 함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악의와 시악함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았던 것과 칼빈 자신의 처지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³⁶⁾ 즉 그는 다윗처럼 사방의 적으로 둘러 싸여 잠시 동안의 휴식조차 즐길 수 없었고, 생명을 내걸고 혼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것은 악의로 인한 상당히 괴로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과정이었다.³⁷⁾

이러한 갈등과 시련의 과정을 설명한 칼빈은 마침내 이것을 이미 위에서 전제한 것처럼 “내 자신이 그토록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다윗)과 일치되고 있음에 적지않은 위로를 받았다”³⁸⁾는 결론으로 이끌고 간다. 칼빈은 자신의 삶에서의 신앙체험을 다윗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체험은 동시에 시편을 이해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자신이 다윗과 일치함에 위로를 받았다고 한 후 그는 “이 지식과 체험이 나로 하여금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³⁹⁾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체험은 자신의 삶이 다윗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시편을 주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칼빈의 시편주석이 신비적이고 비유적인 중세적 방법을 거부하고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와 저자가

35) 저자서문, 164.

36) 저자서문, 164.

37) 저자서문, 165.

38) 저자서문, 168.

39) 저자서문, 168.

말하고 있는 바의 취지와 의도에 보다 성실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법적이고 문자적 의미를 연구⁴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칼빈의 시편 주석은 그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두 개념이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면 그는 시편 저자의 본래적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연결시켜 내면화(內面化)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칼빈의 시편 이해에서 일반적 이해와 개인적 이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 이해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은 기도하도록 이끄는 책이라는 것, 또 찬양하게 하는 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등,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이해는 칼빈 자신의 삶 속에서 가졌던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된 결과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체험이 먼저인지, 아니면 시편에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이 먼저인지는 말하기 어렵다.⁴¹⁾ 하지만 두 가지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3. 교회의 교화를 위하여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그 목적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평화와 안식으로 누리는 데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40) 편집자 서문, 145.

41) 부스마,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성”, 347-369 참조.

이런 기쁨이나 평화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단계 교회의 교화라는 다음 목표로 이어진다. 즉 칼빈의 체험과 시편주석의 최종적 목적이 교회의 교화이다. 그는 시편 주석을 쓴 목적 자체를 “교회의 교화에 관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⁴²⁾때문이라고 말한다. 시편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서 그는 시편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책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역에 대한 찬사를 발견할 수 없다⁴³⁾고 말한다.

그의 교회 이해는 그런데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는 제네바 도시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것을 “국가를 교란시키려는 사악한 모임과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간 것을 이런 공격이 패배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이 교회”로 받고 있다.⁴⁴⁾ 이것을 보면 칼빈은 교회라는 개념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교회를 단순히 신자들의 집합체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까지 교회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칼빈은 개인 또는 신자들이나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나, 국가나 사회에다 어떤 특별한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는 개인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이며,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것은 교회라는 기본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⁴⁶⁾ 이런 이유로 칼빈은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고통이 “교회가 교회의 지체라고

42) 저자서문, 168.

43) 저자서문, 159.

44) 저자서문, 163. “국가를 교란시키려는... 모임과... 공격들이 패배 당했을 때... 사실 나는 이 교회의 변영이...”

45)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한다”(강요, 4권1장)고 하고 신자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강요, 4권5장)고 해서 교회를 신자의 필수적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46) 이것은 칼빈의 교회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강요 4권 1장에서 신자는 모두 진정한 교회와 연합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표명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했던 내적 고통⁴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이 받았던 고통은 이스라엘 (이라는 교회)이 받았던 고통이고, 칼빈 자신이 받았던 고통은 교회의 고통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칼빈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고통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교회 내부의 (또는 외부의) 사악한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했을 때 교회 규범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이다.⁴⁸⁾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고통은 자신이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옹기 지키려하는 노력이 빚어낸 결과로서의 고통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이유는 교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자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중상모략했기 때문이다.⁴⁹⁾ 교회를 위한 것이든 칼빈 자신에 대한 것이든 결과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교회의 규범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투쟁은 제네바 사람들의 신앙심 없음에 따른 파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고⁵⁰⁾, 칼빈 개인에 대한 중상모략 역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벌이면서도 그를 공격하고 있었던 교회 내부의 적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⁵¹⁾ 그리고 이것은 그의 시편 주석을 그의 목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이 틀을 이해하면 칼빈이 어째서 교회 외부와 내부의 원수들과의 싸움이나 자신의 신학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거의 동일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교회를 옹기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본다면 교회 규범에 반대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려는 시도나 칼빈의 신학

47) 저자서문, 160.

48) 저자서문, 164.

49) 저자서문, 164.

50) 저자서문, 164.

51) 저자서문, 167.

인 예정론에 대한 반대, 또 그에 대한 증상모략까지도 모두 똑같이 교회를 흔들고 파괴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⁵²⁾

2.4 성령의 뜻을 확인

칼빈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은 어쩌면 겸손보다는 교만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한 모욕까지 교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세르베투스의 사형 사건⁵³⁾을 포함한 여러 사형 역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⁵⁴⁾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서 츠바이크처럼 또는 칼빈과 동시대의 사람인 카스텔리오처럼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편에 대한 이해에서 칼빈은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다. 시편에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비판에 잠긴 자들, 슬픈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기대를 가진 자들, 걱정하는 자들, 당황하는 자들—간단히 말해서 혼란된 감정으로 쉽게 동요되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있다.”⁵⁵⁾ 또 가장 해로운 감염인 위선에서 벗어나 모든 피난처들이 발견되고 마음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희귀하며 독특한 이득이 있다는 칼빈의 말은 대답을 암시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자신의 일은 성령의 뜻을 한 것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철학공부를 시작했다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 법률공

52) 저자서문, 164-5.

53) 세르베투스의 사형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은 슈테판 츠바이크, 『폭력에 대한 양심』(안인희 역, 서울: 자작나무 1998)이다. 이 책에서 츠바이크는 이 사형을 “권력이 행한 테러”라고 단정한다.

54) 저자서문, 165.

55) 저자서문, 157.

부로 전공을 바꿨다가 다시 회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 즉 섭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강요를 쓴 것은 물론 제네바에서 활동한 모든 것의 기초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인식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실 성령의 운동에 관해서는 칼빈 자신은 주석 서문에서 별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칼빈은 성경의 모든 주석에서 목적이자 시편을 주석하는 “우선적이며 커다란 목적”이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이해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⁵⁶⁾ 여기서 만일 우리가 칼빈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성령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시편을 주석하면서 나는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내적인 감정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감정들을 내가 이미 체험한 바 있는 사건들으로써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⁵⁷⁾ 즉 여기에서 그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그는 아마도 ‘나는 시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검증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혼란된 감정이라면 시편을 읽고 기도하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게 되면 당신에게 현재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일들, 가장 혹독하고 심했던 고통들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유래함으로 달콤한 것으로 변할 것⁵⁸⁾이라는 훈계를 들을지도 모른다.

56) 편집자 서문, 145.

57) 저자서문, 168.

58) 저자서문, 159.

3. 시편 주석과 목회자 칼빈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칼빈의 시편 이해는 그의 삶 또는 신앙 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그의 시편 이해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삶을 전적인 목회자로서 자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미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목회자로서, 특별히 시편 주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에서 다룬 시편 이해와는 달리 시편을 통해 칼빈이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칼빈이 시편주석을 쓴 것은 1557년이다. 그가 1541년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간 지 이미 15년이 넘었을 때이다. 그는 이 주석을 쓰면서 그 때까지 경험했던 자신의 삶이 시편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경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⁵⁹⁾ 그는 주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말씀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삶의 여정이 말씀과 일치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3.1.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목회지에 이르기까지

칼빈은 자신의 소명의 시작을 시편에서 다윗이 양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져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과 비교하고 있다. 칼빈은 자신이 소명을 받고 복음 전파자로 나서게 된 것을 본래 낮고 비천한 신분에서 이끌어내셔서 복음 선포자와 사역자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주심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어주셨다고 말한다.⁶⁰⁾

여기서 낮고 비천한 신분은 어렸을 때 부친이 신학공부를 시키려고 걱정했던 것과 그후 법학공부로 바뀌게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어

59) 편집자 서문, 151.

60) 저자서문, 160.

렸을 때 신학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역시 낮고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모습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신학공부나 법률공부가 둘 다 그의 아버지가 결정했던 것으로 법률공부로 바뀌게 된 이유를 “법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부를 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처음 목적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말았다”⁶¹⁾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칼빈 자신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을 충실하게 적응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런 회심을 통해 참 경건에 대한 어떤 맛과 지식을 얻은 후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에 불붙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여기서 “갑작스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윗과 관련해서 쓰고 있고, 특히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회심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⁶²⁾ 이 회심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유순하게 되었다. 이 말은 회심 이후 자신이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고, 이 변화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 예기치 않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된다. 갑작스런 회심을 통해 신학 공부에 열심을 내게 된 후 “놀랍게도” 순전한 가르침을 찾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61) 저자서문, 160.

62)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정성구,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 이제스트 1990) 133-6 이하에서 칼빈의 글 “사톨레토에 대한 답신”을 근거로 ‘갑작스런’은 과거 경험의 결정이며 사색과 토론의 결정체였다고 말한다. 칼빈이 어느 날 자신을 보니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Willem Nijenhuis는 “갑작기(plötzlich)”가 아니라 “예기치않은(unerwartet)”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Calvin”, in *TRE Bde. VII*, 570. 시편 서문의 문맥으로 보면 Nijenhuis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른 방향전환과 변화들을 통해 인도”⁶³⁾ 하셨던 것이다.⁶⁴⁾

이렇게 예기치 않은 변화로의 인도는 그 후에도 계속된다. 파리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종교개혁적 취지의 연설을 했던 친구였던 콥과 함께 수배를 받게 됨에 따라 칼빈 역시 바젤로 피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칼빈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기독교 강요 첫째 판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책의 출판 역시 칼빈은 하나님의 인도이자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것 역시 비천한 신분의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것이 프랑스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화형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재세례파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 침묵이 “비겁자와 배반자”라는 고발로부터 변호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⁶⁵⁾이었다. 이 책으로 인해 칼빈이 그 후에 엄청난 명성을 누리게 되는데 그는 이 책이 결코 명성을 얻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그는 이것이 명성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특별한 인도는 그의 첫 목회지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바젤에서 파리와 고향에 들러 재산을 정리한 후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그로 가서 한 귀퉁이에서 해석가나 영감을 주는 자로 숨어 지내려던 계획은 좌절된다.⁶⁷⁾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길이 전쟁으로 막혀서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63) 저자서문, 161.

64) 이 회심과 변화는 칼빈이 프랑스에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는 계기가 되는 콥사건을 염두에 둔 서술일 것이다.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77-84 참조

65) 저자서문, 162.

66) 저자서문, 162.

67)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151.

되었는데, 이때 제네바의 열정적 종교개혁자였던 파렐이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와서 제네바에서 함께 개혁활동을 할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⁶⁸⁾ 칼빈은 이 청을 거절하자 페렐은 만일 그의 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은거생활과 추구하는 연구들의 평온함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협박했고, 칼빈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 계획했던 여행을 단념하고 말았다.”⁶⁹⁾ 이 저주에 대해 칼빈은 “그 무서운 저주가 내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하늘에서 펴사 나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었다”⁷⁰⁾고 고백하고 있다(1536).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소명, 신학자로서의 활동, 그리고 목회지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그가 자신의 소명의 시작과 임무의 계속되는 진로를 다윗의 생에서 그대로, 그것도 특별히 시편에서의 다윗에서 보고 있다⁷¹⁾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준다. 칼빈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3.2. 목회 활동에서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에 머물게 된 칼빈은 그해 8월에 성 삐에르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바울 서신을 강해하는 것으로 그의 일을 시작했다.⁷²⁾ 그리고 그해 연말부터 설교자로서의 활동도 시작했다. 그가 언제 목사로 인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아마 1537년 초에 목사로 임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다.⁷³⁾ 아니면

68) 저자서문, 162-163.

69) 저자서문, 163.

70) 저자서문, 162.

71) 저자서문, 160.

72) Willem Nijenhuis, “Calvin”, in *TRE Bde VII*, 571.

73)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158.

플라동의 추측처럼 1536년 11월 10일에 제네바 교회 목사로 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⁷⁴⁾ 파커는 이런 추측을 근거로 칼빈이 제네바 시의 한 교회를 책임지는 전임목사였음을 강조한다.⁷⁵⁾ 이런 내용들은 그가 언제 제네바시의 공식 목회자로 임명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제네바 시에서 1536년 말부터 목회자로 활동한 것은 거의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⁷⁶⁾

하지만 그에게 제네바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에 머문 지 녁 달이 못되어 재세례파의 공격을 받았고, 배교자들에 의해 많은 고초를 겪고,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알력들에 휘말리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⁷⁾ 이런 어려움에 대해 칼빈 자신은 자신이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부드러우며 무기력한 성격”⁷⁸⁾이고 이런 것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는 1537년 1월 16일에 의회에 제출한 “교회조직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 등을 통해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신앙고백문에 개인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것 등 강하게 압박했다.⁷⁹⁾ 이런 압박은 초기에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일정부분 성공했으나 지나친 압박은 시 전체 분위기에서 저항적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의회지도자들과의 불화로도 이어지고 동시에 다른 개혁 도시이자 제네바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베른시(市)와의 관계 등등으로 마침내 칼빈을 포함한 개혁자들이

74)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29.

75) Ibid.

76) “교회에서 이같이 목사와 교사로 선포되었으므로 … 그(칼빈)는 간단한 형식의 신앙고백서를 준비하였다” Opera Calvini (Corpus Reformatorum) 21, 58f. 파커의 책, 129에서 재인용.

77) 저자서문, 163.

78) 저자서문, 163.

79)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137-141 참조.

제네바에서 추방되게 한 요인이 되었다(1538).⁸⁰⁾

추방당한 칼빈은 마틴 부처의 권고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프랑스인들을 위한 교회의 목회자로 갔다. 이때 역시 칼빈은 어떤 대중의 비난에 대한 명예와 구애를 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마틴 부처가 이전에 파렐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위협해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목회자 일을 맡도록 했다고 쓰고 있다.⁸¹⁾

하지만 그는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간다. 칼빈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던 동요와 다툼, 국가를 교란시키려는 사악한 모임과 공격들이 주님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패퇴했기 때문이다.⁸²⁾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칼빈은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바람과는 정반대”라고 말하면서도,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는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⁸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제네바에 대해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네바 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슬픔과 눈물과 큰 걱정과 근심으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⁸⁴⁾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자신의 목회 전과정에 대해서 역시 시편의 다윗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그는 “그 거룩한 왕(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이방 국가들로 인한 계속된 전쟁의 시달림을 겪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백성들 가운데 일단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악의와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처지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⁸⁵⁾고 말한다. 다윗이 당했던 시달림인 블레셋 족속과 이방 국가들로 인한 시달림은 칼빈에

80) 저자서문, 163.

81) 저자서문, 163.

82) 저자서문, 163.

83) 저자서문, 163.

84) 저자서문, 164.

85) 저자서문, 164.

게서는 제네바 교회 외부의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이었고,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당했던 고통은 칼빈에게서는 교회 내부의 원수들이었다. 시편 서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교회 외부의 원수들이란 베른시의 간섭⁸⁶⁾과 제네바 시민에게 보낸 사톨레토의 편지에 대한 것⁸⁷⁾ 또 세르베투스의 화형 사건⁸⁸⁾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원수들은 교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악한 자유주의자들에 관한 것이다.⁸⁹⁾

아마도 칼빈은 외부의 원수들에게서보다는 내부적 원수들에게서 더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다윗이 신실하지 못한 백성에게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지 칼빈은 시편의 다윗과 비교해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특정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회의 내적인 적들에 대해서는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처한 입장과 역울함을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칼빈이 설명하는 내부의 적들은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그가 사악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은 부패한 평민들을 유혹하고 괴팍한 변론을 사용함으로써, 평민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억압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고 갈망하므로 교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게 되고,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⁹⁰⁾ 두 번째 부류는 칼빈의 신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칼빈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에 의해 운영되고 지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그를 하나님이 죄의 조

86) 루이스 W. 스피츠, 『종교개혁사』(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19 이하 참조

87) 임원택, “종교개혁의 필연성”, 『기독교신학저널』 2 (2002), 171-195 참조

88) 츠바이크, 『폭력에 대항한 양심』 참조

89) 저자서문, 164.

90) 저자서문, 164.

성자로 만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또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다.⁹¹⁾ 이 부류에는 성찬에서 화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포함된다.⁹²⁾ 마지막 세 번째는 칼빈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칼빈이 상당한 재산가나 또는 개혁가라는 이름을 걸고 뒤로 뇌물을 받거나 해서 치부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다.⁹³⁾

이 내부의 적들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상당히 신랄하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들을 함께 묶어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형제라는 명목 하에 스스로를 감추고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주고 있는 자들, 간단히 말해서 복음전파자라고 큰 소리로 자랑하는 자들이 내게 꽤 씩씩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진저리나는 일이겠는가?”⁹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물론 그와 함께 하던 목회자들의 일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41:9),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시55:1-14).”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그 자신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소연하는 것이 정당할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⁹⁵⁾ 한편

91) 저자서문, 165-6.

92) 저자서문, 167.

93) 저자서문, 166.

94) 저자서문, 166.

95) 저자서문, 166.

성례전을 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너희는 싸우려 하느도다(시120:7)”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여기서도 그는 예외 없이 “나도 다윗의 예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⁹⁶⁾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번째 종류인 칼빈 개인에 대한 비난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연회에서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시35:16)”라는 다윗의 말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칼빈은 목회 활동에서 받았던 어려움이나 고통을 모두 시편의 다윗이 가졌던 어려움과 일치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선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쓰러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것 역시 시편의 다윗과 연관시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시69:4)”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이나 공격을 까닭 없는 것⁹⁷⁾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움과 공격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인 다윗과 일치하고 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⁹⁸⁾

4. 비판적 정리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칼빈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시편의 내용 특별히 다윗의 개인적 경험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런 연결은 그러나 역지로 하는 무리한 연결은 아니다. 그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에서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96) 저자서문, 167.

97) 저자서문, 168.

98) 저자서문, 168.

통해서 시편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다윗과 일치한다는 “지식과 체험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말하자면 시편을 묵상함에 있어서 어떤 알기 어려운 영역일지라도 잘못 빛나간 적이 없었다.”⁹⁹⁾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시편을 이해하고 주석하는 데 있어 비록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본문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연구하지만¹⁰⁰⁾ 동시에 그가 받았던 인문주의 영향으로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삶의 현실과 성경해석을 연결시키려는 노력¹⁰¹⁾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특별히 칼빈은 자신이 받았던 인문주의적 지식과 연결시켜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발전시켰다는 견해¹⁰²⁾는 칼빈의 최종적 관심사가 말씀과 삶의 일치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시편 주석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를 통해서 훌륭히 증명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칼빈의 목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목회 과정과 말씀의 이해는 서로 교호적 관계 내지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그의 상당히 모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주석이 “그리 훈련되지 못한 독자들에게 시편을 이해함에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¹⁰³⁾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서문 여러 곳에서 시편이나 위선이나 혼란 등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는 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자신에 관해서 말할 때 위선이나 혼란은 항상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99) 저자서문, 168.

100) 편집자 서문, 145.

101) 부스마, “르네상스 인문주의”, 347-369 참조.

102) Peter Opitz,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Neukirchner: Neukirchener Verlag, 1994).

103) 저자서문, 157.

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한 옳지 않은 비난과 공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위로 받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시편 주석의 서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난이 자신에게로 향한 것은 단 한번도 없다. 시편서문에서 자신의 회한을 내보인 한 가지 내용인 이단 관정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것이 “수치스런 죽음으로 끊어짐”이었고, 그가 보기에 “마음 아프고 가련한 광경”이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항상 갈망”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의 결론은 “그들은 가장 흑독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¹⁰⁴⁾

이것은 어쩌면 칼빈의 시편 주석이나 자신의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중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 사건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칼빈의 시편 이해나 또는 그의 신학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고민하는 시편 51편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밧세바와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알려주자 참회하는 내용인 시편 51편에 대해 칼빈은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한 참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 개인의 기도로 해석하고, 다윗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있다.¹⁰⁵⁾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현장과의 연결하는 것은 칼빈이 시편을 주석하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¹⁰⁶⁾

이것은 칼빈의 신학적 전제이기도 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개개인에게 주는 법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틀과 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칼빈의 신학적 해석학에는 잘 일치할지는 몰라도 그의 해석의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은 지적될 만할 것이다. 즉 다윗의 참회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만 문제 삼는다

104) 저자서문, 165.

105) Opitz,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 36.

106) 같은 곳.

면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범죄에서 다윗의 참회는 어둠에서 꺼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것은 칼빈으로 보면 자신이 교황제의 미신에 빠져있던 것을 갑작스런 회심을 통해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꿔준 것과 같은 틀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옳은 해석일지도 모르고 실제로 시편 51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칼빈의 이해에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참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칼빈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원수들에게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범죄를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면에서 다윗과 자신을 일치시켜 이해하고 있는 칼빈이 다윗의 범죄에서는 자신의 범죄와 연결시킬 것이 전혀 없는 것일까? 혹시 칼빈은 자신을 다윗이 지녔던 고귀한 신분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혹시 그의 신앙적 확신이 이런 태도를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의 삶과 고백을 칼빈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그의 시편주석의 전체적 틀에서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 이 부분에서 칼빈이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 정도는 독자가 당연히 기대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5. 결어

칼빈의 시편 주석은 주석가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칼빈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는 이 주석을 학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고 있다. 서문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한편으로는 시편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힘든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시편을 통해 확인 받고 있다. 이 말은

칼빈이 신학과 목회와 성경연구,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까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일정부분 비판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칼빈은 시편의 내용들을 자신의 삶의 현장과 철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칼빈이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이고, 이것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확인 받고 검증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기인할 것이다. 이는 칼빈의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신학이나 성경해석이 삶의 현장이나 목회 현장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면 칼빈에게서 모범적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개개인에게도 시편 주석에 대한 칼빈의 자세는 좋은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